

오늘의 유머

■ 동생이 필요해
여섯 살 먹은 여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남동생이 있어야겠어.”
당황한 어머니가 말했다.
“애야 그건 좀 힘들단다. 아기를 가지려면 돈이 무척 많이 드는데 아빠랑 엄마랑 지금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단다.”
그러자 딸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엄마! 아기는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말이야. 나랑 이야기 좀 해야겠는데!”

며칠 고민하던 남자는 부대를 돌면서 여자 사친을 모았다.
그리고 모아둔 사진을 모두 편지에 담아 여자에게 보냈다.
“편지 잘 받았다. 미안한데 어떤 사진이 네 사진인지 기억이 안난다. 네 사진만 빼고 다른 사진은 다시 보내주길 바래.”
■ 시험 채점 중
자율학습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중간 고사 주관식 답안지를 채점 하고 있었다.
주관식 중에는 ‘백범일지’ 본문 일부를 적어 놓은 뒤 “위 본문의 출전은 어디인가?”라고 묻는 문제가 있었다.
한 장 한 장 채점을 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쪽소를 터트리면서 학생들에게 말했다.
“아, 교과서라고 쓴 자식 나와!”
■ 거리가 멀어서
한 어린이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떨어뜨려 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
“애야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단다. 그런데 너는 사람들이 못 먹는 빵을 새한테 던져주고 있구나.”
그러자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아저씨를 보면서 말했다.
“아저씨! 그런데 저는 어려서 그렇게 먼 데까지는 빵을 못 던지거든요...”
■ 내 맘을 알겠니?
엄마와 딸이 성형수술에 대해 다른 TV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딸이 엄마를 보면서 말했다.
“엄마, 열 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자식이 못 생기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자 엄마가 한참 동안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애야, 이제 내 맘을 알겠니?”
■ 어떤 계산
멋진 드레스를 걸친 여자가 친구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지난주 남편이 비서하고 놀아나는 장면을 덮쳐서 뭐니!”

“어머,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남편한테 이 드레스를 얻어 입었지.”
“비서는 해고 됐고?”
“아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친구가 정색하며 말했다.
“너는 속도 없냐? 그런 애를 그냥 두게?”
그러자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게도 계산이 있지. 다음에 만날 때는 링크코트를 입고 나올 테니깐!”
■ 남편의 진심
남편과 아내가 호수가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마침 팔등신의 색시한 미녀가 그들 앞으로 지나갔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아내가 남편의 팔을 꼬집으면서 말했다.
“흥, 당신! 만약에 호수에 저 여자랑 내가 빠진다면 누가 먼저 구해낼 거야?”
아내의 얘기를 들은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 요즘 수영 배우고 있잖아...”

리빙 센스

하얀 얼굴 만들기 ④

◇포인트 메이크업
얼굴의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주면 시선을 고정시켜 어두운 피부를 커버할 수 있다. 특히 입술은 얼굴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립글로스로 반짝임을 더하면 얼굴 전체의 인상이 밝아 보인다.
◇기능성 제품 사용 순서
화이트닝 같은 기능성 제품은 순서를 잘 지켜 따라야 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분의 흡수를 방해해 화이트닝 효과가 떨어진다.
◇스트레스는 화이트닝의 적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이상분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안정적인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책을 읽는 게 좋다. 집에만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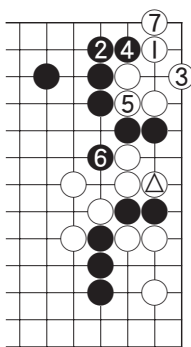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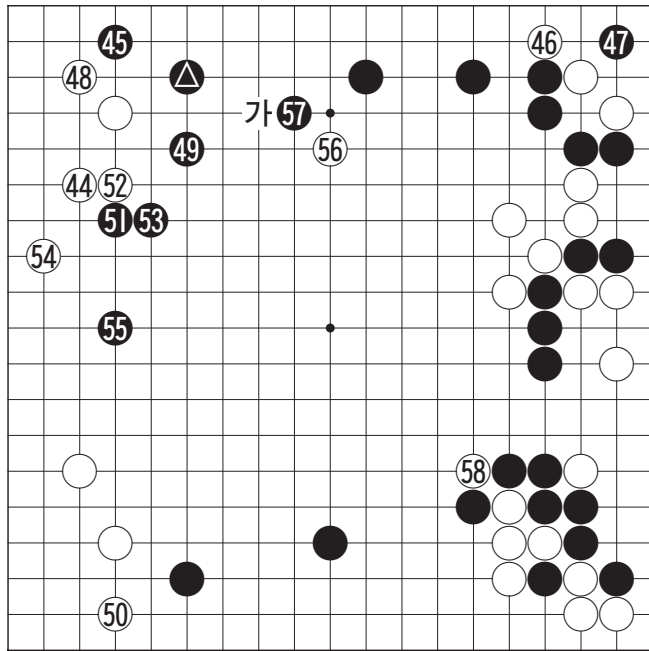
시끌벅적 e-스타



‘남자 연예인 머릿발’ 찾아 클릭! 클릭!

눈부신 조명 혹은 그윽한 조명 아래서 만나볼 수 있는 조명발. 뽀송뽀송 파우더에 고운 빛깔 립글로스 등 온갖 화장품을 동원한 화장발. 색색의 옷으로 연출해 내는 옷발.
외모를 달리 보이게 하는 조명발, 화장발, 옷발 그리고 머릿발도 존재한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남자 연예인들의 머릿발’이라는 동영상에 등장해 2만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머릿발의 실체를 알아본다면 시작되는 동영상에는 우리시대의 멋진 남자 스타들이 속속 등장해 멋쟁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남자 연예인에는 세 가지 부류가 존재한다. 머리가 짧아도 ‘연예인’인 남자 연예인, 머리가 짧으니 ‘일반인’이 되어버리는 남자 연예인 그리고 머리가 짧아 굴욕인 남자 연예인도 있다.
사슴같이 크고 깊은 눈을 가진 배우 원빈은 짧은 머리로 멋있다. 짧은 머리로 귀여움을 연출해 내버리는 ‘완소남’ 배우 조인성도 있다. 군

양수겸장의 호수 4보(44~58)



〈참고도〉

우변에서 바뀌치기로 탐색전을 벌인 다음 흑 ▲로 걸쳐간 장면이다. 우변에서 초반부터 큰 싸움을 벌였지만 아직 포석도 끝나지 않은 상대라 정작 바둑은 이제부터다.
선계성 6단은 지나가는 길에 백 46으로 찢어봤는데 이 수는 보류할 자리로 약수의 의미가 있었다. 이곳은 나중 ‘참고도’의 백 ▲가 놓이면 백 1로 호구치는 수가 있다. 그러면 흑 2로 늘려다오 5가 선수가 되어 7까지 지는 수가 있다.
흑 49가 좋은 착상이다. 이 수로는 ‘가’에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 보다는 좌변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수가 양수겸장의 호수인 것이다.
백 50으로 지킨 것은 큰 곳이며 삼재육 6단은 다시 흑 51로 짚어가 계속해서 좌변을 견제하면서 상변을 키워간다. 백 56은 지금 한 사각이며 백 58로 끊어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주변경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일(음 9월 4일乙亥)

36년생 다시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48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초심은 잃지 마라. 60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으리라. 72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다. 84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37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49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61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전하는 격이나 이성관계는 조심하라. 73년생 바깥엔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라. 85년생 아내의 건강을 살펴라.
38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50년생 자기 일을 조심하라. 62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균이 발생할 수도 있다. 74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39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떨어지지 않리라. 51년생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하라. 63년생 일고는 있으나 좋은 날은 많지 않다. 75년생 혼자하면 재미가 없으니 주변과 어울려라.
40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52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 6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76년생 처음 가는 길이나 살피서 행동해야 한다.
41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을 것이니 마음껏 활동하라. 53년생 손흥에 한해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65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여사가 생길 수 있다. 77년생 승공과 역풍이 같이한다.
42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4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66년생 불평이 나타나나 본인의 잘못이다. 78년생 서류와 뒷사람으로 인해 불평이 있으리라.
43년생 승류에 한해는 격이다. 55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67년생 기억이 쇠니 폐장을 살펴라. 79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으니 식솔은 살펴라.
44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56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다. 68년생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하니 부부간 인정을 삼가라. 80년생 급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좌편 변경도 우려된다.
45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결과는 조그맣다. 57년생 절대 손익 사판과 신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제히 살펴라. 69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81년생 일심일패는 병가지상사다 삼심하지 마라.
46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8년생 양중모색을 하나 힘치는 않다. 70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82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47년생 의심스러운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9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71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83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로소록 쌓이간다.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couple and text about skin improvement.

Table with 4 columns: English/Chinese, Japanese, Korean, and English/Chinese. Each column contains a dialogue exercise with a topic, a question, and a detailed answer in the respective language.